

# “청년 없어요”...전남 농협 조합원 절반이 70대

고령층 46.6% 전국 최고...청년 비율은 1%대 머물러  
여성조합원 비율 광주 37%·전남 36.4% 전국 1~2위

## 민주 김승남 국회의원 국감자료

전남 농·축협 조합원 절반(46.6%) 가  
까이는 70세 이상으로, 이 비율이 전국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여성 조합원 비율  
은 광주 37%·전남 36.4%로 나란히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  
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역 농·축협  
7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전남이 46.6%  
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달 18일 기준 전남지역 70세 이상 조합  
원은 13만5445명으로, 이 지역 전체 조합  
원(29만927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국 평균 7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40.2%로 집계됐다. 전남 70세 이상 조합  
원 비율은 2위인 충남(세종 포함) 42.5%  
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북(42.4%), 경남  
(42.1%), 인천(41.7%), 경북(41.2%), 대  
구(40.9%), 부산(39.1%), 광주  
(38.9%), 충북(36.8%), 대전(36.8%), 서

울(36.6%), 경기(35%), 울산  
(34.3%), 강원(34.1%), 제주(31.3%) 순  
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모두 7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30대 청년 조합  
원은 1%대에 머물렀다.

전남 20~30대 조합원은 전체의 1.7%  
수준인 29만927명이었다. 광주 역시 전체  
조합원 2만1188명 가운데 1.5% 가량인  
321명만 청년 조합원이었다.

전국 조합원 221만6826명 가운데 청년  
비중도 1.6%(3만2987명)에 그쳤다. 청  
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3%·8만  
3331명 중 2463명)였다.

전남 연령대별 조합원 수는 ▲70세 이  
상 13만5445명 ▲60대 8만4244명 ▲50  
대 4만9450명 ▲40대 1만6717명 ▲30대  
4155명 ▲20대 730명 순으로 많았다.

광주는 ▲70세 이상 8252명 ▲60대  
7035명 ▲50대 4263명 ▲40대 1316명  
▲30대 294명 ▲20대 27명 순이었다.

광주-전남 여성 조합원 비중은 각각  
37%와 3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전체 조합원(2만여 명) 가운데  
7844명이 여성이었고, 전남은 29만여 명

## ■시·도별 농·축협 조합원 70세 이상 비중과 무자격 탈퇴 수

지역	70세 이상 (비중)	무자격 탈퇴
1 전남	13만5445 (46.6)	2211
2 충남	11만1237 (42.5)	1740
3 전북	8만3374 (42.4)	676
4 경남	10만2151 (42.1)	2038
5 인천	1만2595 (41.7)	99
6 경북	13만7629 (41.2)	1826
7 대구	1만381 (40.9)	165
8 부산	6444 (39.1)	31
9 광주	8252 (38.9)	67
10 충북	4만7290 (36.8)	1153
11 대전	5854 (36.8)	81
12 서울	6411 (36.6)	9
13 경기	10만4607 (35)	1411
14 울산	9317 (34.3)	174
15 강원	4만3035 (34.1)	625
16 제주	2만6047 (31.3)	402
합계	85만69 (40.2)	1만2708

\*올 1월1일~10월18일 기준  
(자료:농협중앙회·김승남 의원실)

가운데 10만5830명이 여성 조합원이다.  
광주-전남에 이어 여성 조합원 비중은  
전북(34.9%), 부산(34.7%), 충남·세종  
(34.1%), 경남(33.6%), 경기

(32.6%), 대구(32.5%), 인천  
(32.4%), 경북(31.4%), 울산  
(31.1%), 제주(31%), 충북(30.1%), 대  
전(30%), 강원(29%), 서울(25%) 순으  
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올해 조합원 실태조  
사를 벌인 결과 올해 들어 탈퇴한 무자격  
조합원은 전남지역이 221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1월1일~10월18일까지 탈퇴한 무  
자격 조합원은 전국 1만2708명으로, 전남  
은 2211명으로 전체 17.4% 비중을 차지  
했다.

전남에 이어 경남 2038명, 경북 1826  
명, 충남·세종 1740명, 경기 1411명, 충북  
1153명, 강원 625명, 전북 676명, 제주  
402명, 울산 174명, 대구 165명, 인천 99  
명, 대전 81명, 광주 67명, 부산 31명, 서  
울 9명 순으로 무자격 탈퇴가 많았다.

올해 조합원 실태조사는 진행 중으로, 무  
자격 탈퇴 수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고령화·도시화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 미달이나 사업  
위축을 우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어  
려울 수 있지만 불법 선거의 폐단을 없애  
기 위해 조합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해남산 ‘세발나물’ 전 국민이 즐긴다

오늘부터 141개 이마트 판매  
무안 간쪽파 전국 점포서 만나



해남에서 생산된 갯나물인 이른바 ‘세  
발나물’(사진)이 23일부터 전국 141개 이  
마트 매대에 오른다.

이마트는 23일부터 해남산 세발나물  
(200g 1380원)을 전국 이마트 점포에 판  
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발나물은 갯벌 쪽에 자라는 ‘갯나물’  
로, 10월 말부터 재배를 시작해 이듬해 5  
월까지 생산된다.

해남·신안지역에서 나는 갯나물은 갈슘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지역 김  
규호씨 농가에서 직접 세발나물을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납품 농가의 세발나물 연 매출  
은 올해 8000만원으로, 거래 초기보다 4  
배 증가했다.

무안에서 생산되는 간쪽파는 올해 매출

이 10년 전보다 20배 증가한 8억원을 기  
록했다. 이달부터는 이마트 전점에서 만  
날 수 있다.

최인용 이마트 산지 구매 담당자는  
“지역농가의 우수한 국산 상품이 앞으  
로도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  
을 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정보보안 기술 국정원 인증 추가 획득

### 소프트웨어 형태 암호모듈

한전KDN의 정보보안 기술이 국가정보  
원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한전KDN은 전력계통 통신데이터 암호  
화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형태 암호모  
듈이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KCMVP) 추가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암호모듈 검증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  
조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보 보호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  
고 한전KDN 측은 설명했다.

암호가 주기적인 정보보호제품에 탑재  
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 및 구현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한전KDN의 암호모듈 ‘이파워 크립토’  
(ePower Crypto)는 물리적 제어를 통

한 보안과 달리 소프트웨어 형태로 처리  
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암호구현 기법이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배전 자동  
화 시스템(DAS) 사업 등 관련 분야의 다  
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 입증  
돼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한전KDN은  
설명했다.

한전KDN의 암호모듈은 기존 윈도우,  
리눅스, 임베디드 리눅스 등 14종 외에 총  
26종의 운영환경을 지원한다.

한전KDN 전력ICT연구원 관계자는  
“전력망 인프라의 네트워크 통신 구간  
보안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라며 “한전  
KDN은 통합 암호 솔루션으로의 확대 개  
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호남통계청, 지역통계 발전 협력방안 논의 토론회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지역통계발전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광주·전남 2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계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  
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

됨에 따라 지역통계 발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기자의 눈으로 본 지역통계 필요  
성’과 ‘정책활용사례 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호석 호남통계청장은 “지역특성에 맞  
는 맞춤형 지역통계체계 개발과 호남청-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통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점포 5곳 중 1곳 꼴 온누리 모바일권 사용

### 가맹점 수 광주 1155·전남 1729곳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가운  
데 온누리상품권 모바일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 비중은 5곳 중 1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  
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일상품권 가맹점 수는 광주 1155곳·전남  
1729곳 등 전국 4만9087곳으로 집계됐  
다. 모바일권 가맹점은 서울이 12만994곳  
(26.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가맹점  
비중은 광주 2.4%·전남 3.5%로 각각 집  
계됐다.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에서 확인된 전체 점포 수 가운데 모바일  
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 비중은 광  
주 19.3%·전남 20.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비중은 20.1%(24만여 곳 중 4만  
9087곳)였다.

모바일권 사용 점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2.4%)이었고, 충북  
(28.7%), 전북(25.1%), 울산

(24.3%), 충남(23.4%), 경남  
(23.3%), 서울(22.2%), 대전  
(21.8%), 경기(21.1%) 순으로 높았다.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 광주  
는 12번째를 차지했다.

전남은 지류(종이)상품권 사용 가능 점  
포 비중이 서울(63.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70.3%를 나타냈다.

전남 8339개 상가 가운데 지류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는 5860개로 나타났다. 광  
주 비중은 88.8%(5321곳)로 집계됐다.

전국 지류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는 19  
만4940곳으로, 서울이 19%(3만7130곳)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5년 동안(2016년~2020년  
8월) 지류 온누리상품권 훼손에 따른 비  
용은 총 2억31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5년간 교환규모는 총 2만2368장에  
달했다.

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훼손, 부정  
유통 등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최근 2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전체 사  
용액의 0.01% 비중에도 불과한 모바일 상  
품권 사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집에서 할로윈 분위기 내볼까 22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에서 직원들이 유  
령이나 해골, 좀비 등 기괴한 복장을 하고 즐기  
는 축제 ‘할로윈’ (31일)을 앞두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